새해 새 설계

박 종 수 농협 전남본부장

"윤리·정도경영…판매농협 구현"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
유통단계 줄여 직거래
아열대작물 신성장동력

"갑오년 청말 띠 해에 농협은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통해 농업인에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박종수(55) 본부장은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농업인들이 지금보다 더 마음놓고 농사 짓고, 농협도 순항 할수 있도록 '농축산물 판매 확대와 농업인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선진 전남농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이 책임지고 팔아 주는 "판매농협 구현"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금융 손익이 감소됨에 따라 금융 경쟁력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지부별, 조합별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최대한 잘 팔아 주기 위해서 품목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조합 1품목 특화작물을 육성해 지역농산물을 명품화하고, 마트, 농협폴주유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사업이 신용사업을 견인하는 조합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고 금요 상설 직거래장터 및 계절별 제철 농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생산과 유통 및 지도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 전남에서 재배되는 주요 아열대 작물은 여주(강진, 신안, 여수, 진도, 해남), 아스파라거스(강진, 담양, 화순), 콜라비(강진, 보성, 해남), 애플망고(고흥, 여수), 파파야(곡성), 차요테(장흥, 해남) 등이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농협이 판매시스템을 구축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튼튼한 농축협 육성에 대해 박 본부장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밀한 조합의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며 "매분기 가결산 이후 사업규모별로 농축협을 4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경영관리를 통해 튼튼한 농축협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 결집은 물론 직원 각자의 경쟁력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서 "윤리경영과 정도 경영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는 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농협의 지역공헌, 사회 공헌사업을 확대해 농협이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중심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 "행복나눔 봉사단"을 결성해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문화복지센터 및 농업인행복나눔센터를 내실있게 추진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통업계, 설 선물세트·상품권 판매 돌입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본격 판촉전
실속형 상품 구매 인기 예상 가격낮추기

유통업계가 최대 대목인 설을 20여일 앞두고 선물세트와 상품권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설 선물세트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는 실속형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체마다 상품 가격을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작한 예약판매는 실적이 지난해보다 증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다.

백화점측은 상품별로 청과의 경우 올 여름 폭염 탓에 백화점 상품에 적합한 고품질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한우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반사 수요로 값이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산물의 경우 갈치와 굴비 등 비축 물량을 활용해 지난해 수준 가격대를 유지했다.

광주신세계는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품권 수요를 반영, 오는 29일까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상 신세계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각각 25만원, 90만원, 17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트리니티 패키지' 행사를 선보이는 등 설 대목 판매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주말부터 오는 30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와 상품권 판매에 들어간다.

완도 전복, 영광 굴비, 전남 지역 한우 등 지역 우수상품을 모아 판매 한다.

완도 자연산 전복세트(1kg)를 38만원에 판매 하며, 전남지역 한우 브랜드인 녹색한우 알뜰세트(2.8kg)는 15만원이다.

과일세트는 롯데백화점의 친환경 식품 브랜드인 '올가'에서 선보이는 친환경 명품 사과·배 혼합세트도 명절 대표 선물세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관장 '홍삼톤 리미티드'를 22만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설 선물 상담팀'을 구성, 설 상품권 패키지와 선물세트 판매 활동에 나선다.

지역 대형마트도 이번 주말부터 판촉전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10일부터 20일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한우와 청과 등 신선 선물세트는 개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대량구매 고객을 위한 행사를 줄이고, 상품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

롯데마트는 13일부터 설 명절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까지 21일간 전 매장에서 세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품목인 '한우 갈비세트'는 13만5000원, '참굴비 세트2호'는 6만5000원이다.

홈플러스는 13일부터 매출 상위 30여개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 16일부터는 전체 점포에서 설 행사를 벌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말 디자인 가방 인기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여성매장에서 직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디자인된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말띠 해를 맞아 말 모양의 대형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경영회생 농지매입 임대기간 2년 연장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2년 연장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완화한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및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간 임대기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김행윤 전남지역 본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담을 한층 더 덜게 됐다"며 "농지연금 등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해 R&D 2조9000억 투입

시·도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1674억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총 68개 사업에 2조9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해 9일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전력 등 에너지산업 분야 기술개발에 가장 많은 5623억원이 투입되고 로봇·바이오·지식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주력산업 분야에 4728억원이 배정됐다.

시·도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1674억원, 디자인·엔지니어링 등의 산업기반구축사업에 1579억원이 쓰인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사업에는 총 2884억원이 할당됐다.

이 가운데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비가 1565억원으로 54%를 차지한다.

이밖에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442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385억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23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R&D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포스트게놈유전체사업(6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50억원) 등 10개 사업 335억원 규모다.

/연합뉴스